

 <b>인천광역시</b>	<b>보도자료</b>		
	배포일자	2022년 8월 24일(수) 총 2매	
담당 부서	문화유산과	담당자	• 무형문화유산팀장 김혜영 ☎440-8081 • 담당자 이석현 ☎440-8082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인천 전통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대축제, 화합의 장 열려**  
 - 8월 27일~28일 양일간, 흥과 멋이 살아있는 전통공연 -  
 - 인천전통문화예술대축제 개최, 신명난 공연으로 지친 시민들 위로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오는 27과 28일 이틀간 인천무형문화재 전 수교육관 야외공연장에서 ‘2022년 제2회 인천전통문화예술대축제’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개막식 사회 오정해, 폐막식 사회 아나운서 최건용의 진행으로 펼쳐진다. 인천시 10개 군·구 생활문화예술동아리 20개 단체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인·전문예술단체들의 공연 그리고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는 축제다.

명인 출연진으로는 최종실(기산국악제전위원회 이사장), 박준영(국가무형문화재 서도소리 배뱅이굿 전승교육사), 조한숙(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 전승교육사), 오은명(경기도 무형문화재 과천무동답교쇠놀이 보유자), 서한우(천안시립풍물단 예술감독), 박은하(박은하 춤공간 대

표), 강향란(국가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이수자), 유상호(국가무형문화재 서도소리 이수자) 등이 참여해 전통예술의 진정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.

공연은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,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 방문하면 관람할 수 있다.

윤재석 시 문화유산과장은 “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대에 설 기회를 잃은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인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고, 우리의 흥과 멋이 살아있는 전통공연으로 지친 시민들이 위로 받기를 바란다.” 고 밝혔다.

비가 올 경우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내 풍류관에서 진행되며, 공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화(032-507-4379)로 문의하면 된다.

#### <사진> 2021년 공연사진

